

# 손보사 · 생보사, 결산 배당 엇갈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결산 배당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손보사는 사상 최대 5000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축제 분위기인 반면 생보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배당금을 줄이고 있는 상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4개 손보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의 지난해 결산배당금 총액은 5112억원이다.

지난 2015년 결산배당금 총액은 4033억원으로 손보사들은 1년만에 사상 최대 배당잔치를 벌인 셈이다.

손보사별로는 삼성화재가 25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는 1년전 2214억원을 배당했다. 뒤를 이은 현대해상 1076억원, 동부화재 1044억원, KB손보 399억원 등의 순이다.

손보사들이 많은 배당을 한 이유는

## 손보사, 배당잔치 벌이고... 생보사, 배당금 줄이고

실적호조 덕분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8622억원의 당기 순이익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408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전년보다 93% 늘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5,346억원으로 순이익이 24.2% 증가했고 KB손해보험은 3021억원으로 89.6% 늘었다.

손보사들이 배당잔치를 벌이는 사이 생보사들의 배당금은 감소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배당금 총액은 3327억원으로 전년대비 35.2% 감소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이 2조12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두배 이상이 늘었지만 배당금은 줄어든 것이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배당금

을 줄이면서 다른 생보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손보사와 생보사의 배당 분위기가 상반된 원인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도입될 국제 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은 보험 부채(보험금) 평가 방식을 계약 시점 기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저축성보험이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IFRS4 2단계에서는 저축성 보험은 매출이 아니라 고스란히 부채로 잡힌다.

과거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팔았던 저축성보험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

다.

IFRS4 2단계 도입이 부담스러운 곳은 생보사다. 생보사들은 이제껏 저축성 보험 등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생보사의 부채 규모가 최대 3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손보사들은 일단 종신보험 상품이 없고 일반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1년 단기의 단기 상품이어서 생명보험사에 비해 자본확충 부담이 덜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배당금을 줄여 내부 유보금을 늘리겠다는 모습이다"며 "손보사들은 생보사보다 IFRS4 2단계 도입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 하늘처럼 높은 꿈 펼치고 싶어요

이스타항공, 상반기 공채 우수인재 대거 몰려

이스타항공이 정유년 새해 진행한 공개채용 일반직 모집에 우수 인재가 대거 몰리면서 졸업 시즌 저비용항공사 채용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일반직 신입/경력 공개 채용' 1차 서류마감에서 일반직933명, 정비202명, 영업/운송424명 등 총1620여명이 지원했다.

운항승무 일반직의 경우 300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입심사팀도 19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일반직 공개 채용에는 해외거주경력자, 항공영어능력자, 어학능력우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이 대거 지원해 저비용항공사 채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일반직 운송 부문에 지원한 참가 영씨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항공사 취업문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주변에서도 알려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다"며 "이스타항공에 입사가 된다면 중국 등 해외지점에서 저의 강점인 중국어를 통해 직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펼치는 이스타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한 일반직 지원자들은 2월 면접 진행 후 최종 합격자가 선정되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사해 업무에 따른 각 부분별 교육 후 실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최대실적 기록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http://www.bidok.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다.

전북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동기간 대비 낙찰금액 3273억원, 낙찰건수 1,760건, 낙찰업체 1,266업체 규모의 낙찰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낙찰건수(1,509건→1,760건)는 116.6%, 낙찰금액(2868억원→3273억원)은 114.1%, 낙찰업체(1,063

## 동기간 대비 3273억원 · 1760건, 1266업체 규모 낙찰

업체→1,266업체)는 119.1% 증가한 수치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입찰 능력 및 입찰실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전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경진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설입찰, 용역입찰, 물품입찰, 매각입찰 등 전국의 산재된 발주처(조달청 나라장터, 국방부, 도로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통신, 아파트 단지 등)의 입/낙찰정보

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기업들의 전자입찰 낙찰률 향상을 위해 1:1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등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을 진행하며 1:1 전문가 컨설팅,교육과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등 실무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관계자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입찰정보 수집비용 절감하고 입찰참여 확대를 통해 매출상승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정보 사이트(<http://www.bidok.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승인을 받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 입찰교육, 컨설팅 등 사업참여에 관한 문의는 전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28)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내마케팅팀 (063-711-2031)으로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저수지 87곳 안전진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3월말까지 관내 87개 저수지에 대해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주완주임실지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87개에 대해 지자체 및 지자체 합동으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저수

지 제당, 방수로, 취수시설 등 시설물 상태를 일제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요청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택 지사장은 "집중호우 시, 저수지 붕괴나 배수장 가동중단의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4월초에 자체적으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은 7일 라무체 2층 별관에서 도내 우체국 FC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FC 연합회 제5대 이연임 회장 취임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중기청,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공모

수출 전과정 통합지원 28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중소기업청은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선정 후, GMD가 직접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매칭해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을 공고했다.

GMD는 신시장·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 사후관리까지 수출 전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된 이번 사업은 올해는 예산 120억원을 투입, 4대 특수분야에서 70개 전문 GMD를 선발해 총 550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 과정을 밀착지원 할 예정이며,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이고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GMD 매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비용'과 중진공공 '수출금융지원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GMD는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고 중

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 단기 무역보험료 50% 할인 등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GMD는 28일까지이며, 참여기업은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청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투어컴 크루즈 여행 돌연 취소

국내 최대 후불제 여행사이자 전북을 기반으로 성장한 투어컴의 크루즈 여행이 돌연 취소됐다.

투어컴은 지난 해 12월 미국의 코스타 크루즈선과 6항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 7일 인천항을 모항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어컴에서 모객 실패로 납부해야할 마지막 잔금10억을 납부하지 못해 크루즈여행이 출발 하루를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투어컴 관계자는 "이번 여행 취소사태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잔액환급과, 제주도무료여행, 손해배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북우정청 FC 연합회 이연임 회장 취임

전북우정청은 7일 라무체 2층 별관에서 도내 우체국 FC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우정청 FC 연합회 제5대 이연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연임 회장은 "갈수록 우체국 FC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

스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문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우체국 FC 자긍심 고취와 서비스 강화로 새로운 고객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